

# 국책 공과 대학의 중간 점검

공과 대학 국책 지원 사업은 정부가 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구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학 연 산 협동을 통한 새로운 과학 기업기술의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한 학부과정을 겸비한 공과 대학을 육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우수 지방 공과 대학 내에서 특성화 분야를 선정 지원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과 대학에서는 그 지역의 산업과 교육, 연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 교육, 연구 발전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강계원

교육부는 공과 대학 국책 지원 사업(5개년)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원대학의 선정 평가와 특성화 발전 계획 지도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명단은 별표와 같으며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대학 교육 행정 심의관 및 대학 행정 지원 과장 등 교육부 담당관이 포함되어있다.

기획 평가 위원회의 기능은 ①공과 대학 국책지원사업의 기본계획심의, ②산업권역과 교육, 연구 특성화분야 선정, ③심사계획수립, 평가기준개발 및 심사, ④지정된 대학에 대한 교육, 연구 발전계획지도 및 성과평가, ⑤그 외 본 사업에 필요한 자문활동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 기술, 경험을 겸비한 고급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의 교육, 연구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산업기술의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첫째 지역의 산업여건과 연계하여 공과 대학의 몇 개 학과 혹은 학과 군을 특성화하여 집중지원 육성하는 것, 둘째 권역내 대학 연구소, 산업체를 연계하여 학, 연, 산 총체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 셋째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간, 교수간의 선의의 경쟁풍토 조성과 대학 교육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고 공과 대학내의 중점 육성 분야는 학 연 산의 광범위한 협동연구가 필요한 분야, 집약적 노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또는 21세기에 세계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분야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 대학은 지금까지 연구가 미약하고 교육에 있어서 질보다 수적팽창에 치

우치며 그나마 우수한 인재양성이 수도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한된 재정으로 우수한 지방대학을 선정. 육성함은 타당성 있게 느껴진다. 물론 그 전에도 지방 대학의 특성화 시도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몇 개의 대학에서 그 영향을 받아 다소나마 향상되었음이 사실이나 그 때의 특성화 방법은 관 주도적이며 그 당시의 여건에 비추어 투자도 너무나 적었던 것 같다.

공과 대학 국책 사업에 자율적으로 응모한 대학 32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공과 대학이었으며 이는 지원 대상 대학 45개 중 70%를 넘는 것이었다. 이는 원래 교육부가 4개 공과 대학을 지정하여 년 대학당 100억 정도의 지원을 구상했었으나 각 대학에서는 국책 지원 공과 대학으로 선정되느냐의 여부가 공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전체 발전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많은 대학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경제단체, 지역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언론 등이 결속하며 공과 대학 국책 지원 사업 유치에 나서게 됨으로 경쟁이 과열된 징조를 나타냈다. 공과 대학 협의회뿐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까지 지원대상 대학의 수를 확대해 주도록 희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대상 대학의 수를 4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대학을 포함한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목표 등 지원대책을 이원화하게 되었다.

앞에서 말한 32개 공과 대학은 각 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여 발전 계획서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제출하였다. 1994년 6월과 7월에는 평가위원회들을 중심으로 특성화 발전계획의 타당성, 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여건의 적합성 및 발전계획의 추진 체제 및 달성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그 때 선정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각 대학마다 주어진 준비기간이 너무나 단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은 자료와 충실한 내용을 갖춘 발전 계획서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대학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노력으로 산업체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대응투자규모가 무려 1조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차 서류 심사에서는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유난히도 무덤덤 94년 여름에는 일차 선정된 12개 대학의 총장님, 국책지원 사업추진단 그리고 많은 공대 교수님들의 유치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평가에 참가했던 많은 교수님과 산업체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다만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현장평가를 통해서 우리 나라 지방 공과 대학의 교육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산업체에서 오신 평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최종선정은 8개 대학으로 1994년 8월에 확정되어 1차년도 사업은 1994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사업의 규정을 제정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등 대학 나름대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95년에 접어들어서부터였다. 선정된 후부터 교육부가 주관하여 지정대학 공대학장 또는 특성화 추진 단장, 운영 평가 위원들의 연석 회의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도 있으며 평가 위원회는 몇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작년 11월에

일차 년도 점검을 시도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특성화 사업을 위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자문 위원회, 운영 위원회 등을 두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평가 위원회는 이 자체평가 결과와 일차 년도 실적이 지원당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원래 본 사업은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부와 산업체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록 사업이 시작된지 1년이 갓 지난 시기였고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95년 봄학기 부터로 생각되지만 대다수의 대학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 동안에 선정당시 열성을 보였던 대학의 총장, 공대 학장 그리고 많은 보직 교수들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시고 새로이 행정을 담당하신 교수들께서도 이에 못지 않은 정열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대학이 이 사업의 추진 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대응자금 확보를 위해서 참여 교수 전원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많은 지역 사회의 중소기업들이 공과 대학 국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사업과 연관하여 대학 장학금, 현물 또는 기금 등으로 기여하고 있음은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짧은 기간동안에 나타난 몇가지 성과를 보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 분야에 있어서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특성화가 알려지면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의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지적되던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적으나마 달라지고 있으며 실험 실습실의 기자재가 확보되고 실험실 분위가 새롭게 단장되고 있다. 교과과정이 정비되면서 실습 위주의 현장감이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 참여 교수님들이 열의가 돋보여 공과 대학의 연구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각 대학들이 공학 교육의 혁신과 산 학 연 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현장 공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대응자금 확보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며 지식 기술 경험을 겸비한 우수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과 산 학 연 협동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센터 건립사업 부진 등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는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나서야 평가를 해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에 준 자극이나 공과 대학내의 교육, 연구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으며 많은 교수들의 열정과 의욕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획 평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대학의 잠재력을 알 수 있었으며 고 김호길 학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던 "대학에서 교육, 연구하는 사람이면 그 나라 지식 수준과 산업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가 실제 사회에서 유익하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경제 발전에 처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의 중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 초 첨단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현실성 있는 중장기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연구에 힘써

야한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비록 이 사업이 8개의 공과 대학에 국한되어있지만 더 많은 대학과 학과들이 혜택을 받아 같은 대열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그 동안 국책사업을 추진해오신 대학의 추진단장을 비롯하여 참여하신 많은 교수님께 고개를 숙여 사의를 표하며 강진구 위원장님을 위시한 기획 평가 위원님들의 성의와 기탄없는 토론들, 그리고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께서 열성적으로 일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 평가 위원회 명단〉

성 명	기 관 명	
강진구	삼성전자회장	위원장
배순훈	대우전자회장	
강인구	LG 전자 부회장(현 영남공전 학장)	
이대윤	현대자동차 연구소장	
이원연	과기정책 연구단장	
이현구	서울대 교수	
권속인	고려대 교수	
오두환	연세대 교수	
이장호	서강대 교수	
오재용	한양대 교수	
성평모	서울대 교수	
이군현	과기원 교수	
강계원	과기원 교수	부위원장